

‘연아 키즈’ 최다빈 ‘국민 요정’ 됐다

다섯살에 피겨 입문, 김연아 장학금 받으며 성장
삿포로에서 피겨 첫 金...점프 안정성 탁월 ‘컨시퀀’



‘피겨퀀’ 김연아(27)의 매력에 빠져 피겨스케이팅에 입문한 최다빈(17·수리고)이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연아 키즈’에서 한 단계 성장해 한국 여자 싱글을 대표하는 ‘포스트 연아’로 우뚝 섰다. 최다빈은 25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나이 실내링크에서 끝난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에서 총점 187.54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역대 한국 선수 1호’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에서 한국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최다빈은 대표적인 ‘연아 키즈’다. 2005년 다섯 살의 나이로 언니를 따라 처음 피겨에 입문한 최다빈은 ‘피겨퀀’ 김연아와 특별한 인연을 맺으면서 선수로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김연아는 2007년 1월 피겨 꿈나무 6명을 위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내놨다. 당시 김연아가 쾌척한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일곱 살 ‘꼬마’ 최다빈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최다빈은 김연아의 모교인 수리고에 재학중이고, 김연아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에서 한술밥을 먹는 ‘끈끈한 인연’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162.35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김연아가 시니어 데뷔 직전인 2006년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한국 선수로는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고, 이를 통해 최다빈은 ‘연아 키즈’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최다빈은 2015-2016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와 4차 대회에서 연속 동메달을 따내며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4대륙 대회 개막 2주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쇼트프로그램 음악을 바꾼 최다빈의 전략은 대성공했고,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가장 높은 5위에 랭크됐다. 최다빈은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쇼트프로그램(61.62점), 프리스케이팅(120.79점), 총점(182.41점) 모두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을 따내는 성과도 올렸다. 기본 좋은 상승세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으로 이어졌다. 애초 최다빈은 아시안게임 출전권이 없었지만 박소연이 발목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대체 선수로 발탁돼 삿포로 무대에 섰다. 쇼트프로그램부터 ‘클린 연기’로 ‘메달 경쟁자’인 일본의 흥고 리키를 제압



한국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한 최다빈(17·수리고·왼쪽)이 10년 전인 2007년 1월, ‘김연아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연아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 최다빈은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안정된 연기로 한국 선수 역대 첫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영광을 맛보며 ‘포스트 연아’의 주인공이 됐다. 최다빈의 장점은 현역 시절 김연아의 최고 장점으로 꼽혔던 점프 성공률이 높다는 점이다. 점프의 안정성(consistency)이 뛰어난 점프에서 좀처럼 넘어지지 않으면서 ‘컨시퀀’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다만 기술점수와 비교하면 예술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고쳐야 할 점이다.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프로그램에서도 예술점수 요소들이 전부 6점대에 머물렀다. 은메달을 따낸 흥고가 모두 7점대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이제 최다빈의 시선은 오는 3월 세계선수권대회를 향하고 있다. 발목을 다친 김나현(고천고)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대체선수’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평창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대회여서 최다빈의 어깨가 무겁지만 상승세를 앞세워 최다빈 많은 티켓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25일 일본 삿포로 마코마나이 실내 링크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국 최다빈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다빈은 한국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오락가락 비...선수들은 피곤해

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25일 오전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훈련에 앞서 몸풀기 운동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진우 기자 jeans@kwangju.co.kr

킨구장에 실내연습장 없어
숙소 앞 웨이트장서 몸풀고
30분 거리 구장까지 원정
스케줄·휴식일 변경에
제대로 된 훈련 소화 못해

‘호랑이 군단’이 날씨에 웃고 운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가 마련된 일본 오키나와는 며칠 굶은 날씨에 계속되고 있다. 매일 같이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최근 KIA의 최대 고민은 ‘스케줄 짜기’가 됐다. KIA의 캠프지인 킨구장은 실내 연습장이 없다. 그래서 비가 오면 킨구장 훈련 일정이 전면 중단된다. 지난 23일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간밤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킨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실내 연습장이 있는 구시기와 구장으로 이동해 훈련을 할 수 있었다. 구시기와 구장을 캠프지로 사용하는 SK와이번스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 전지훈련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곳에서 대신 훈련을 진행했던 WBC 대표팀도 이날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자리가 난 것이다. 그러나 26일은 상황이 달랐다. 전날에

는 오며걸 해가 나기도 하는 등 훈련하기 좋은 날씨였지만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이날 오전에도 계속됐다. 여기에 플로리다 캠프를 마무리한 SK가 26일부터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시작하게 되면서 구시기와 구장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오전에 급히 KIA의 훈련 스케줄이 변경됐다. 숙소 앞 웨이트장이 오전 훈련장이 됐다. 좁은 공간에서 오전 웨이트를 소화한 선수들은 오후에는 영양 섭취와 관련한 트레이닝 파트의 미팅으로 하루 스케줄을 마무리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히로시마전 출전

으로 KIA 캠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앞서 KIA는 23일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에서 공·수에서 집중력 난조를 보이며 1-15 대패를 당했다. 일본전 6연패에 빠진 KIA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이날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한 투수 손영민과 김중훈 그리고 내야수 최원준과 외야수 이진영을 대만 퓨처스 캠프로 보냈다. 또 휴식일 변경이라는 파격 행보를 했다. 비 예보까지 감안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 24일 선수단이 휴식을 취하게 했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지만 이를 훈련 뒤 휴식일이 된 것이다. 그러나 25일 밤 시작된 비에 아간 훈련에

차질이 빚어졌고, 26일 훈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비를 피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훈련 스케줄을 짜려는 코칭 스태프도 머리가 아프고, 언제 변동될지 모르는 훈련 스케줄을 기다리느라 선수들도 피곤하다. 다행히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가 예정된 27일에는 구름 조금 낀 날씨가 될 전망이다. 곳은 날씨에 고전을 하고 있는 KIA가 회장 날씨 속에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연패를 탈출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김진우·박지훈, 올 시즌 키플레이어”

서재응 해설위원 캠프 찾아



다고 해도 (군 공백 기간이 있어서) 중간에 한번 페이스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손영민은 조금 더 길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도 전망했다. KIA 불펜의 새 힘으로 박지훈을 꼽은 서재응은 김진우를 핵심 선수로 언급했다. 서 위원은 “김진우가 선발자리에 들어가 아프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해설위원 2년 차를 맞은 서재응, ‘컨트롤 아티스트’로 통했던 서재응답게 정확한 해설을 하는 게 그의 목표다. 서 위원은 “해설을 하면서 야구를 보는 폭이 넓어졌다. 선수 때와 다르게 여러 선수가 눈에 띄기도 한다. 팀 클리너도 정확하게 보인다. 안에 있을 때는 KIA가 약팀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상대가 한방이 있는 팀으로 인식한다. 또 최형우도 들어왔고 (김선빈, 안치홍 등) 돌아온 선수들도 있고 다른 팀 투수들이 ‘어떻게 막아요?’라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며 “해설하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한다.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설할 말은 하는 해설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는 강한 팀. 김진우, 박지훈이 올 시즌 키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24일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서재응이 KIA 훈련이 진행되는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을 방문했다. 서 위원은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하는 구단들을 살펴볼려 왔다. 먼저 KIA 캠프를 가야 한다고 주장해서 전정을 가장 먼저 찾았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번 출장에서 서 위원이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외국인 선수’다.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각 구단의 새로운 전력이자 변수이기 때문이다. 서 위원은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 아무래도 각 팀은 기존 틀이 있으니 까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선수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또 각 팀의 취약점도 관심사다. 얼마 만큼 (취약점이) 보강되었나를 확인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팀 내부에서도 KIA를 지켜봤던 서 위원이 말하는 ‘호랑이 군단’의 취약점은 어디일까? 서 위원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중간 투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문제다”며 “그래도 박지훈이 들어와서 승리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준비를 잘했

KIA, 타이완 리틀 야구선수 위한 클리닉 행사

KIA 타이거즈가 기아자동차와 함께 타이완 리틀 야구 선수들을 위한 클리닉 행사를 개최한다. 타이완 타이난에서 스프링캠프를 하고 있는 퓨처스 선수단은 오는 28일 카오슝 청취후 구장에서 야구 클리닉 행사를 연다. 이번 야구 클리닉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저소득층 어린이로 구성된 리틀야구단 선수 70명을 대상으로 한다. 야구 클리닉은 캐치볼과 투구, 타격, 수비 훈련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KIA 정회열 퓨처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박정철, 윤정우, 오준혁 등 선수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 KIA 구단과 기아자동차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배트와 글러브, 야구공, 사인볼 등 6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어린이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